

해외 PF에 대한 이해

한 양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최 광 열 교수

= 목

차 =

I. Project Finance 개념

1. Project Finance 개요

가.정의 나.특징 다.구조 라.동향

2. Project Finance 자금조달 방법

가. 사업주 나. 외부기관

3. Project Finance 와 사회간접자본시설

가. BOT 와 BTL

나.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

다. PF 적용시 고려사항

4. Project Finance 대상사업

II. Project Finance 심사

1. Participants 신용도 검사

2. Project 위험에 대한 심사

3. 현금흐름에 대한 심사

III. Project Finance 사례

1. 이란 4th Aromatics Project

2. 터키 Tupras Project

3. 이란 South Pars Project

I. Project Finance 개념

1. PROJECT FINANCE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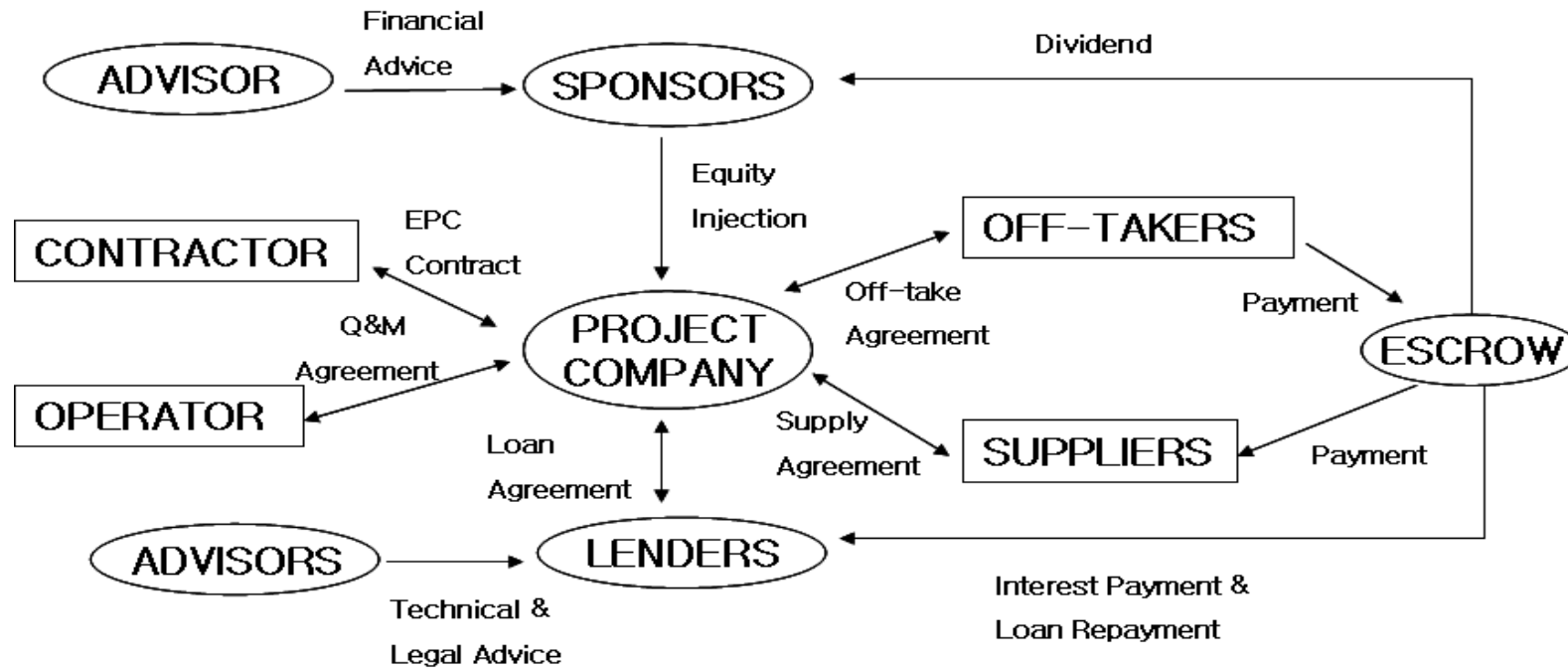
가. 정 의

- 기업 금융(**Corporate Finance**)에 대응하는 금융 기법으로,
- 사업주(**Sponsor**)가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신규 **Project** 를 계획할 경우,
- 동 **Project** 의 미래 현금 흐름(**Cash Flow**)을 상환 재원으로 하고,
- 동 **Project** 의 자산 및 사업주의 일부 담보 제공 등
직간접 보장(**Non / Limited Recourse**)을 근거로,
 - 제 3 자의 **Project** 자산 취득에 따른 수익 구조 변경 방지
- 동 **Project** 를 위해 설립된 별도의 독립회사(**Project Company**)가
이 **Project** 에 소요되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

나. 특 징

- 독립된 **Project Company** 설립
 - 사업주(**Sponsor**)입장에서 **Off-Balance Sheet Financing** (부외거래)
- 소구권 제한(**Non / Limited Recourse**)
 - 사업주의 차주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면제 또는 제한
- 철저한 자금 관리
 - **Escrow Accounts** 이용/대출약정서에 근거한 대리은행의 자금관리
- 다수의 자금공여자(**Syndicated Loan**)
 - 자금의 대규모, 참여 금융기관 간 **Risk** 분담
-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 각종 전문가(법률, 기술, 보험 등) 이용에 따른 비용 등

다. 구조



(주) ·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O&M : Operation & Maintenance

· OFF-TAKERS : 구매자

· ESCROW : Project의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는 3국 개설 계좌

- **Project Sponsor** : **Project Company** 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회사(한 회사 또는 Consortium)
- **Project Company** : 해당 **Project**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자본금은 총 **Cost** 의 20-30%,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
- **Lenders** : 대규모 자금이므로 **Syndicated Loan** 형태로 자금이 지원
 -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 . **KEXIM/KSURE, U.S. EXIM** 등 : **CIRR** 고정금리
 - 국제개발금융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 . **IFC, IBRD, ADB, EBRD** 등
 - 상업금융기관(**Commercial Banks**) 등
 - . **BNP Paribas** 등 : 변동금리(**Libor + Spread**)

- **Contractor** : **Project Company** 는 공사비 초과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확정가격에 의한 일괄도급계약’(**Fixed-price & Lump-sum Turn-key Contract**) 방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때 건설업체를 통상 **EPC Contractor** 라 함
- **Suppliers** : 완성품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기관
- **Off-takers** : 완성품을 구매하는 장기 구매기관
- **Operator** : 완성된 **Facility** 를 운영/관리하는 회사
- **Advisor** : **Project** 의 성공을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조언하는 전문가
 - * **Financial Advisor**
 - 복잡한 구조, 대규모 조달 자금에 대해 조언 및
주재국 정부/대출은행 등과 협상

라. 동 향

- o 석유/가스 산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 o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대규모 프로젝트
 - **High leveraged , Multi sourcing (Both)**
 - 현지 조달분의 증가, 금융기관 공조 필요성 증대 (**Both**)
- o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 Structured Finance** 추세
 - 선진국 : 인프라 , 전력 // 개도국 : 석유/ 가스, 정유/유화
- o 중기 금융 선호 (장기 금융에 애로)
- o **Buyer's Market** 추세 지속
 - 우량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 **Pricing** 의 경쟁적 인하
 - **Sponsor** 와 대주간 관계 중요 (**Club Deal** 형태 등)

2. PROJECT FINANCE 자금 조달 방법

가. 사업주

(1) 출자금(Equity)

- 제공자 : 사업주(Sponsor), MDB, Infra Fund, 일반투자자 등

(2)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Loan)

- 성 격 : 중간자본금(Mezzanine Capital) - CB, BW 등
- 제공자 : 사업주, 금융기관, 기금 등

나. 외 부 기 관

(1) 수 출 신 용 기 관 : < OECD 협약 준수 , 지원대상 거래 및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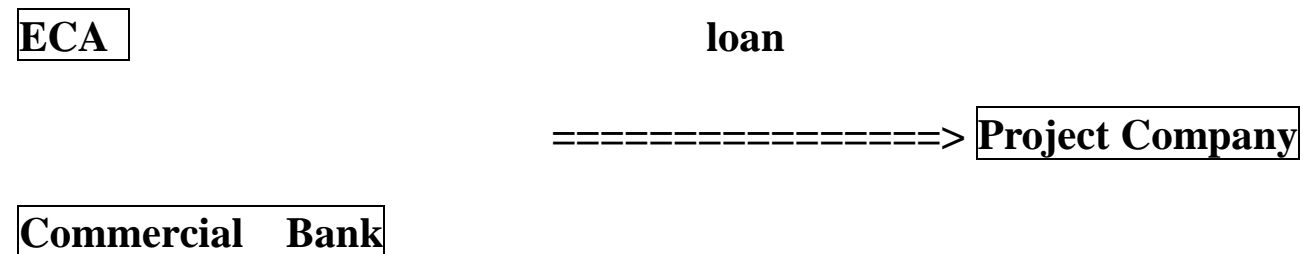
- o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 가 자국의 수출촉진이나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제공 (**a tied finance**)
 - 해외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 위험 부담
 - 개도국 정부/공기업에 지원 =>**Political Risk** 부담 (시장실패 보완)
 - **Commercial Risk** 도 적극 수용 (90 년대부터 **PF** 적극 추진)
- o 지원 형태 : 대출 (**Lending**), 보증 (**Guarantee**), 보험 (**Insurance**)
- o 장기 고정금리 : 개도국 산업설비 도입에 가장 적합
- o 국제규범 (OECD 협약)등에 의한 금융조건 규제 : 무역 왜곡 방지
- o **KEXIM /KSURE , US-EXIM, SACE (이) , JBIC(일):Gov't Agency** 형태

수출 신용 지원 방법

(1) Cover Provider



(2) Loan Provider



(참 고)

수출입은행(KEXIM)의 금융 상품

o 대 출 (수출자금 , 해외투자 자금, 수입자금)

* 수출자금

:. 계약 및 선적 단계- 제작금융, 기술제공전 금융 등

. 인도 단계 - 연불금융, 기술제공후 금융 등

o 보 증

- 채무 보증 : 수출입금융을 제공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앞 보증

(보증료율 : ‘OECD 보증 프리미엄’)

- 이행성 보증 : 수출계약 이행 관련 보증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가산율)

(2) 국제개발금융기관 : < 공식 지원 절차 보유 (투명성), 환경 문제 중시 >

- o 개도국 (회원국) 경제, 사회 및 민간분야 지원
 - 국제 개발 기관 : **World Bank Group (IBRD, MIGA, IFC , IDA)**
 - 지역 개발 기관 : **ADB, AfDB, laDB (미주), IDB (이슬람), EIB**
- o **Political Risk** 감소 효과
- o 촉매 역할 (**Catalytic Role**) : **Credit Enhancement**
- o 프로젝트 환경영향, 고용창출, 기술이전효과 고려
- o 지분 출자시 경영에는 미관여
- o 절차 복잡, 장기의 심사기간과 고비용 소요
- o 일반적으로 상업금융기관과 협조융자 (**Co-financing**)
- o 지원방식 : **Equity, Loan, Guarantee, Insurance**

(3) 상 업 금 융 기 관

- o 유동성 풍부, 지원 조건 및 절차 관련 높은 융통성

- 대출기간 : 국가별 상이, 통상 10 년 내외

중동지역 GCC 국가에 대해 20 년 지원 사례

- 변동금리 조건 (고정금리 요구시 스왑 제공)

- 최종 금액은 제한적임 : 위험 분산 차원에서 Syndication 활용

- o 신용위험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주로 Commercial Risk 부담

- Political Risk 수용상의 한계로,

ECA / MDB 의 PRI (Political Risk Insurance) 요구

- 대규모 사업 : Financial Advisor 역할 수행

(4) 현 지 금 융

- o 사업 시행국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 : 주로 현지화
 - 현지 소요비용 일부 및 초기 운전자금 등
 - ECA / MDB 의 Local Currency Financing 도 가능
- o Political Risk 감소 효과 : 현지 유력기관등과 유대관계 활용
- o Infrastructure 또는 내수 중심 사업 : 통화 갭 해소 효과
- o 프로젝트 관리상의 이점 : Eyes and Ears
- o 금융산업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 일반적으로 유동성 부족-> 대규모 자금조달 어렵고 조달비용 높음
- o 중동지역 : Oil Money 바탕으로 유동성 풍부(Islamic Finance 활성화)

3. PROJECT FINANCE 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가. BOT 와 BTL

(1) BOT(Build- Operate- Transfer)

- 공공부문 영역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모델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일정기간(Concession Period)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건설비용을 회수토록 하고,
Concession Period 종료 후 관련 시설을
정부등 공공부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업방식
- * BTO (Build-Transfer-Operate), BOO (Build-Own-Operate) 등

(2) BTL(Build-Transfer-Lease)

- 국가 긴요사업의 정부재원 제약으로 도입
- 리스방식을 활용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

나.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 (**Privatization**)

- (1) '80 년대 개발도상국 재정수지 악화와 외채 문제 해결
 - (2) '90 년대 선진국 공공사업부문 비효율성 개선
 - (3) 사회 간접자본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 추진 (**BOT, BOO** 등)
 - (4) 영 국 : -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 . 92 년 영국 정부가 도입,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
 - . 인프라등 공공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포괄, 업무위탁
 - . **DBFO (Design - Build - Finance - Operate)**-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 99 년 영국 정부가 도입,
PFI 를 바탕으로 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사업 방식
- [국 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참 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과 민간 투자

- o IPP (Independent Power Project / Producer)
 - . 민간 발전사업(자)
 - o IWPP (Independent Water & Power Project / Producer)
 - . 민간 담수 발전사업(자)
 - o MPP (Merchant Power Project / Producer)
 - . 상업 발전사업(자)
- * **Sponsor Bidding**
- . 인프라 사업 (BOT 방식 등)에서
사업 운영권을 부여 받을 사업주를 선정하는 입찰
 - . 입찰자에게 사업구조, 적용기술, EPC Contractor, 소요자금 조달 방법,
제반 계약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토록 함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PF 적용시 고려 사항

(1) 높은 부채의존도

- 출자금의 수준이상 수익 기대가 곤란하여 출자금 최소화

(2) 장기자금 조달이 필수

- 긴 내용연수(도로, 교량: 20-40 년)

(3) 안정적인 수입 확보 곤란

- 특정 수요자와 장기공급계약으로 안정적 수입확보 곤란

(4) 운영 초기 위험 가중

- 공급량이 장래수요 최고치에 맞춰 건설=>초기 수요 부족

(5) 정부의 개입

- 정부는 프로젝트 입안/관리/사용료 결정 등 규제자 역할

4. PROJECT FINANCE 대상 사업

가. 시대별 추이

- (1) 1856 년 : 수에즈 운하 개발사업이 효시
- (2) 1930 년대 : 미국 Texas 유전개발 사업에 이용
- (3) 1950 년대 : 선박 금융에 활용
- (4) 1970 년대 : 선진국 (영국: 유전개발, 미국: 민자발전 등)
- (5) 1980 년대 : 개도국 (터키 : BOT 법 [1987 년])
- (6) 1990 년대 : 동남아, 중남미 (필리핀, 멕시코 등)
- (7) 1990 년대 중반이후 : Peak (발전소, 통신, 정유/가스/석유화학 등)

나. 대상사업의 요건

- (1) 미래 현금 수입이 확실히 예상될 것
- (2) 생산물의 판매/서비스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것
- (3) 생산 기술의 상업적 입증이 가능할 것
- (4) 경제적 수익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

다. 대상사업의 종류

- (1) 자원 개발 **Project** : 석유, 가스, 석탄 등
- (2) 설치 및 건설 **Project** : 가스관, 송유관, 터널, 도로 등
- (3) **Plant Project** : 발전소, LNG 처리공장 등
- (4) 서비스 산업 : 대형 관광호텔, 대형 위락시설 개발 등

* 해외 부동산 개발업 : 분양/가격의 예측이 어려워 **PF** 적용 어려움

II. Project Finance 심사

PF 사업성 분석 및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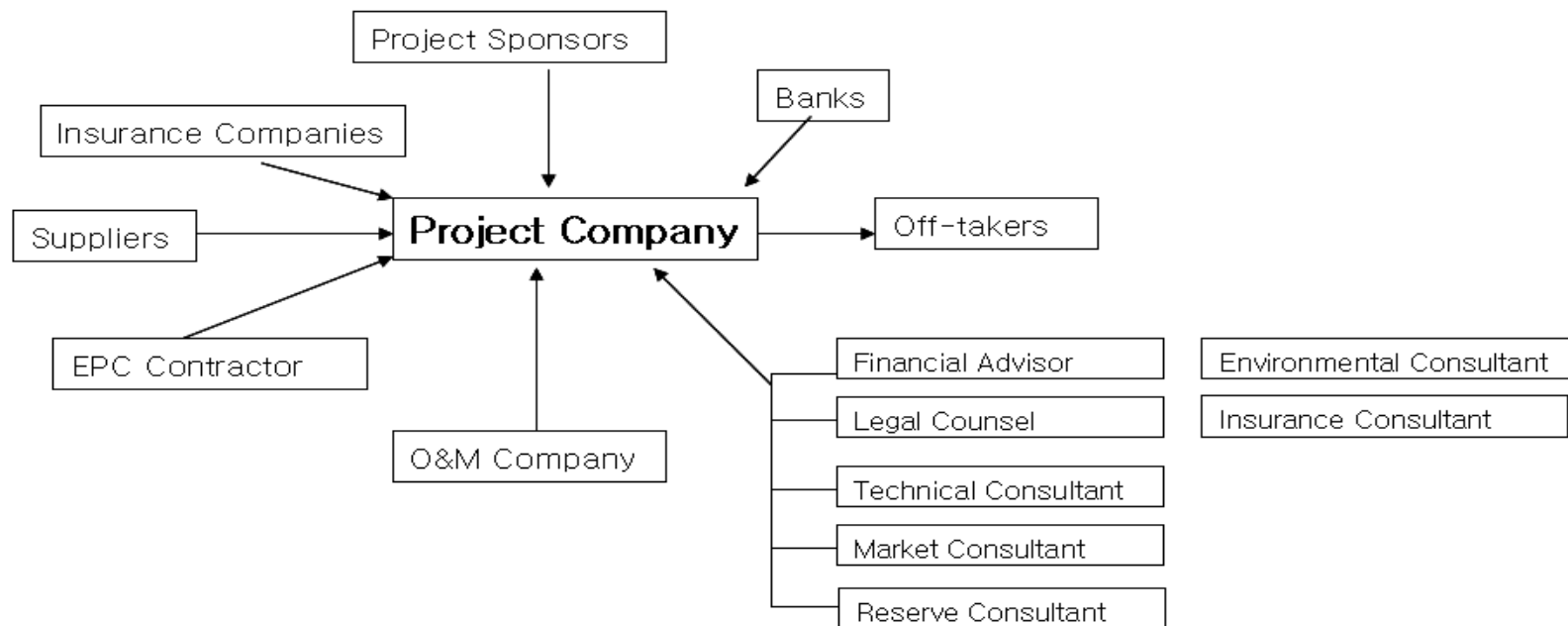
- o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심사
 - 위험의 내용과 크기
 - 위험의 경감과 배분 방안 도출

위험의 종류

- o 통제불가능 위험과 통제가능 위험
 - 통제불가능 위험
 - . 불가항력 위험(**Force Majeure Risk**): 홍수/지진 자연재해 등
 - .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환전/송금, 내란/폭동, 몰수 등
 - 통제가능 위험
 - . 상업 위험(**Commercial Risk**): 사업주,완공,가동,원료공급,판매,재무 등

1. PARTICIPANTS 의 신용도 검사

- : 당사자가 도산 또는 신용도가 악화되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아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사태 발생
- => **PROJECT** 관련 당사자에 대해 심사가 필요



가. PROJECT SPONSORS

: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무, 특히 자본금 및 후순위채 출자, 공사비 초과 지원(**Cost Overrun Support**), 현금 부족 지원(**Cash Deficiency Support**), 공사 완공 보증(**Completion Guarantee**)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후진국: **Sponsor** 의 신용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완

- 신용도가 양호한 지분 출자자의 개별 또는 연대 보증 제공
- 신용 상태 양호한 금융기관의 **Standby L/C** 제공
- 예금 담보, 주식 담보 등의 담보 제공
- 국영기업체의 경우 국가의 보증 제공 등

* 대기업 : 자회사가 지분 출자자가 되는 경우, 모회사로부터 보증

나. EPC Contractor

: EPC Contractor 가 완공전에 도산하게 되면, 대체 EPC Contractor 가 선정되어 공사 재개시까지 완공이 지연되고, 공사비 초과 사태 등이 발생하여 Project 완공에 심각한 문제가 봉착되는 바, EPC Contractor 의 신용도가 양호해야 함.

○ 신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장치

- 모회사의 보증
-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P-Bond 징구
- EPC Contractor 가 Consortium 형태로 이루어 질 경우,
콘소시엄 Leading 회사/ 신용상태가 양호한 회사의 보증 징구

(참 고)

프로젝트 이행성 보증

- o 종 류 (진행 단계별)
 - 입찰 보증 (Bid Bond)
 - 선수금 환급 보증 (Advance Payment Bond)
 -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 하자 보수 보증 (Warranty Bond)
- o 법적 성격
 - 제 3 자 보증 (Third Party Guarantee)
 - 무조건적 지불보증 (Unconditional)
 - 취소 불능 보증 (Irrevocable)
 - 우발 채무 (Contingent)

다. **Off-Taker** (장기 구매자)

: 장기구매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계약기간이 장기인 바, 동 기간중 장기 구매자 도산시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Off-Taker** 의 신용도가 양호해야 함. 특히, 생산물의 현물시장(**Spot Market**)에 비추어 볼 때 장기 구매자의 신용도가 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용도를 보완해야 함.

- 장기구매자가 신용상태 양호한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의 보증 징구
- 장기구매자 거래은행으로 부터의 **Standby L/C** 징구
(금액: 현물시장 발달 정도, 대체 장기구매자 확보 기간 등 고려)

라. 기타 관련 당사자

(1) 원료 공급회사 등

: 원료 공급회사, 운영사, 제품 및 원료 운송회사 등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필수

(2) 보험회사

: 원보험회사(**Direct Insurance Company**)와 재보험회사(**Reinsurance Company**)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필수

(3) 금융 기관

: **Project** 금융은 건설기간 동안 대출금이 분할, 인출되므로 **Lender's Default** 시
Project 에 막대한 영향
=>차관단 구성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은행으로 제한함이 필수

2. Project 관련 위험에 대한 심사

가. 정치적 위험

: S & P 또는 Moody's 국가 신용 등급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신용 등급이 BBB- 또는 Baa3 미만으로 위험이 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위험 회피 장치가 있는 지 심사가 요구됨

(한국 : S & P <AA> , Moody's <A a 2>)

- 적절한 정치적 위험보험(PRI: Political Risk Insurance) 확보

: 무역보험공사, World Bank 산하 MIGA, 보험사

- Sponsor 의 정치적 위험 보증 제공
- 수출입은행 또는 MDB (IFC,ADB 등) 대출 수준
- Project 소재 정부기관 Letter of Comfort 확보 등

나. 완공 위험

: 공사비 초과(**Cost Overrun**), 완공 지연(**Delay**), 생산량 부족 및 품질 불량(**Underperformance**)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같은 위험이 회피 되었는 지에 대해 심사가 요구됨.

- **Sponsor** 의 공사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
- **Sponsor** 의 공사비 초과 지원(**Cost Overrun Support**)
- **EPC Contractor** 와 확정금액, 확정완공일자로 일괄발주계약 체결
- **EPC Contract** 상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조항의 적정성 등

다. 가동 위험

: 운영과 관리 위험에 대해 위험이 완화 되었는 지 심사가 요구됨

- 운영사(**Operator**)와 장기 운영.관리(**O & M**) 계약체결 여부 등

라. 원료 공급 위험

: 안정적인 원료 확보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 능력있는 업체와 장기 원료공급(**Feedstock Supply**)계약 여부 등

마. 판매 위험

: 생산량의 판매 및 판매가격의 하락 위험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 장기판매계약(**L/T Off-Take Agt**) 체결- **Take-or- Pay** 조항 적정성
- **Sponsor** 의 현금 부족 지원(**Cash Deficiency Support**) 적정성

바. 재무 위험(**Financial Risk**)

: 이자율 변동, 환율변동 위험 등 재무위험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후진국 **Project** 환율 위험: 수출-> 낮음, 내수(통신, 도로)-> 큼)

- 역외 **Escrow Account** 개설, **Swap** 등

사. 사회 간접자본 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위험

: 전력, 통신,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 장기 항만/운송 이용 계약 등

아. 환경 위험(공해 등)

: 환경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 상업금융기관의 환경 가이드라인인 **Equator Principle** 에 의거,

ESIA(Environmental & Social Impact Assessment) 실시 등

자. 불가항력 위험(**Force Majeure**)

: 화재, 홍수, 지진, 파업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시

Project 가동 중단 등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 보험만이 유일한 수단(**Business Interruption**[조업중단] 보험등)

3. 현금 흐름(Cash Flow)에 대한 심사

가. 현금 흐름 종류

(1) Management Case

: Sponsor 와 Financial Advisor 가 작성(낙관적 가정, PIM 에 포함)

(2) Bank Base Case

: 주간사은행이 Syndication 을 위해 작성(합리적 가정, IM 에 포함)

(3) Downside Case

: Bank Base Case 를 기준으로 작성(보수적 가정, 민감도 분석에 사용)

(4) Breakeven Case

: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 생산물 가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

나. 현금 흐름 심사

: 현금 흐름 심사는 **Cash Flow** 관련 가정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가정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 능력 심사 등 두단계로 나누어 짐

(1) 가정의 타당성 심사

- 과거 추세 자료(**Historical Data**)
- 같은 종류의 다른 **Project** 자료와 비교
- **Project** 를 위해 선정된 **Independent Market Consultant**,
Technical Consultant, **Reserve Consultant** 등의 보고서 등

(2) 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 능력 심사

○ Sponsor 입장

- IRR(Internal Rate of Return)과 ROE (Return on Equity) 등 수익성 비율 분석에 관심의 초점

○ 대출 금융기관 입장

- 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주요 관심사로 비율 분석에 심사의 초점

(가)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 의 의 : 매년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냄
- 계산 방법 : $DSCR = \frac{\text{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text{해당년도의 원리금 상환}}$
- 일반적으로 1.3 이상이 요구됨

(나) **LLCR(Loan Life Coverage Ratio)**

- 의 의 : 대출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냄
- 계산 방법 : $LLCR = \frac{\text{대출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text{영업개시 직전의 순차입 잔액}}$
- 일반적으로 1.5 이상이 요구됨

(다) **IRR(Internal Rate of Return)**

- 의 의 : 투자에 따른 현금유출(**Cash Outflow**)의
현재 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현금유입(**Cash Inflow**)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 **Sponsor** 는 **IRR** 이 기대수익율 보다 높을 때 투자

(라) **ROE(Return on Equity)**

- 의 의 : 자기자본 투자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 **Sponsor** 는 **ROE** 가 기대수익율 보다 높을 때 투자

III. Project Finance 사례

1. 이란 4th Aromatics Project(K-EXIM Lo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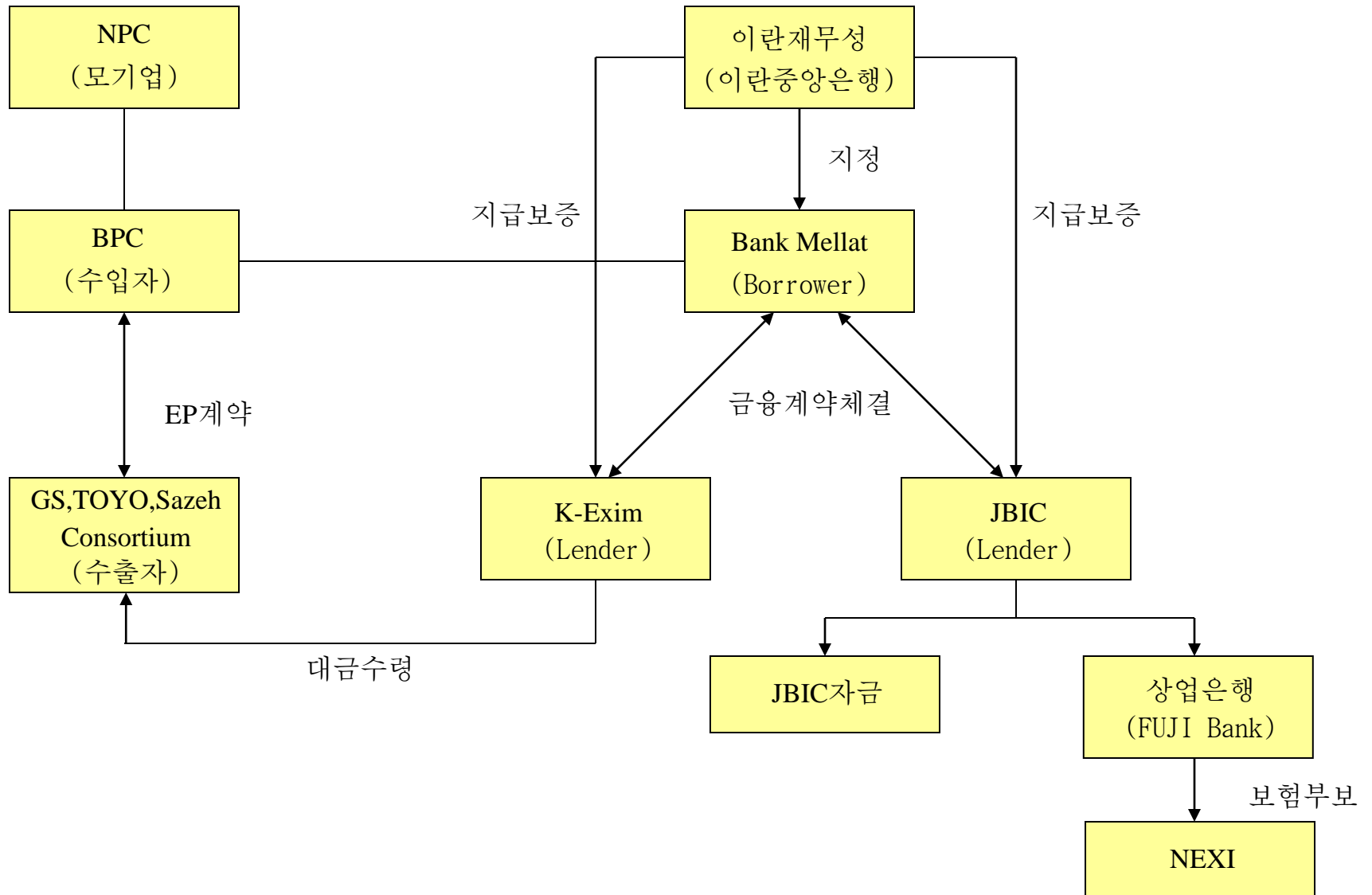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프로젝트명 : 이란 4TH Aromatics 석유화학생산설비
- 수출 계약 금액 : U\$409백만 상당
- 수출자 : GS건설, Toyo(일본), Sazeh(이란) Consortium
[GS U\$94백만, Toyo ¥28,419백만(U\$271백만), Sazeh ¥4,639백만(U\$44백만)]

2. 주요 금융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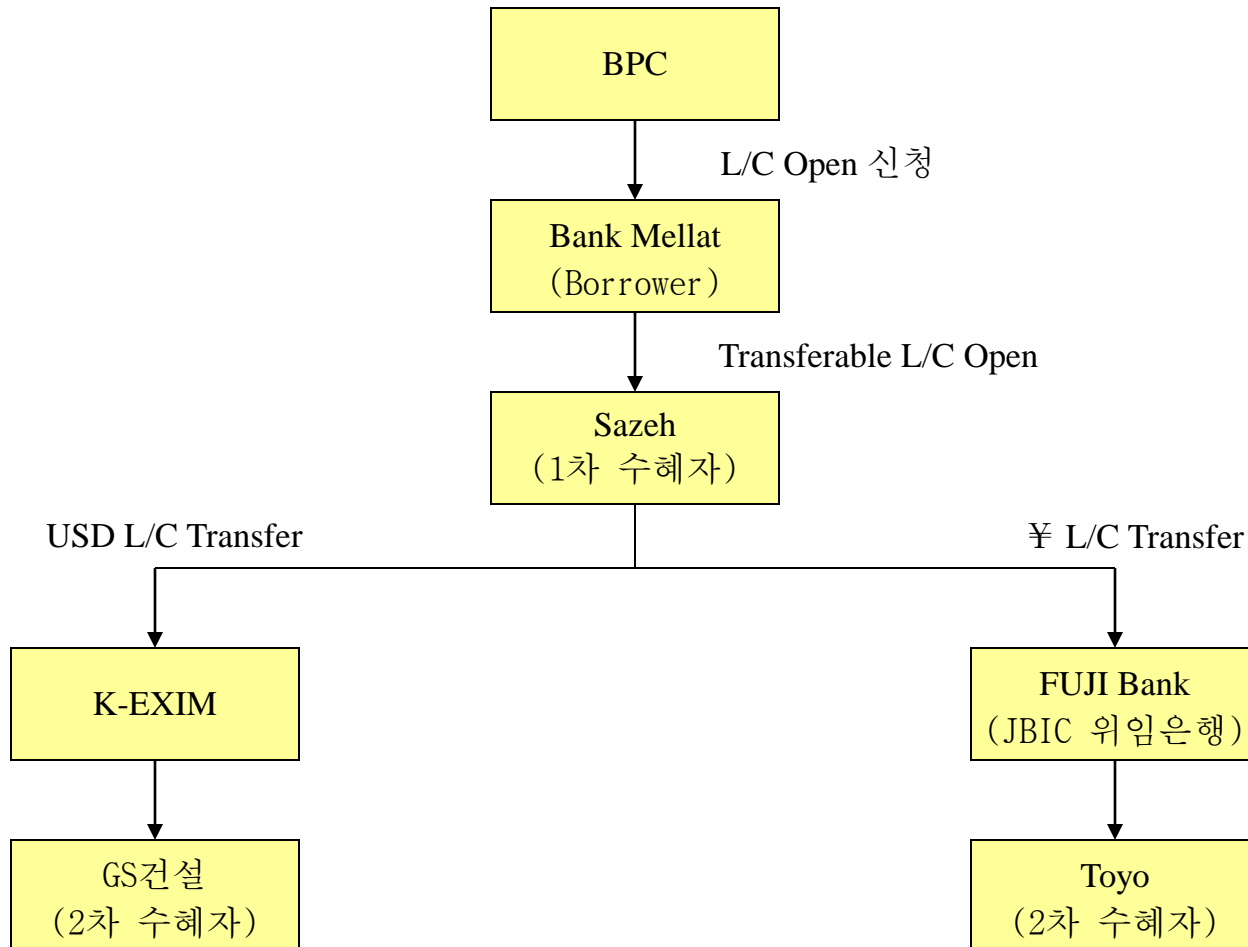
- 차입자 : Bank Mellat(이란)
- 대출 금액 : U\$80,085,823(GS건설 계약금액의 85%)
- 대출 기간 : Project Completion 후 8.5년(건설기간은 거치기간으로 인정)
- 금리 : 6.7%/년 (고정금리) - CIRR
- 상환 방법 : 년 2회 균등분할상환
- 선적전 Risk : KSURE 90% 보험부보
- 지급 보증 : 이란재무성

3. 금융구조



4. 자금수령절차 및 계약발효일

가. L/C 수령



나. 자금수령

- 선수금 15% : GS건설이 K-EXIM을 통하여 Bank Mellat에 서류(AP-Bond, Invoice 등) 제출 후
(사업주자체자금) 5영업일 이내 Bank Mellat이 K-EXIM에 입금.
⇒ GS건설 자금 수령
- 기성금 85% : Clean Nego → K-EXIM 서류제출 후 자금 수령
(K-EXIM 자금) 하자 Nego → Bank Mellat 승인 후 자금 수령

다. 계약 발효일

- 계약자 AP/P-Bond 제출 : Loan Agreement 후 제출
- 금융계약서 발효 : 이란재무성의 지급보증서 수령
- 계약자 선수금 수령(5%)
- Master L/C 수령

5. 주요 Risk 관리

가. 수출선적전 Risk

* KSURE 선적전보험 확보

나. Consortium 자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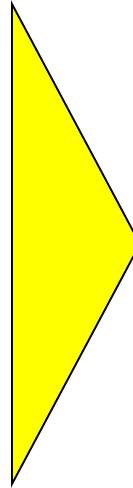
* Common Pot 구좌 운영
(USD, ₩ 구좌)

다. 환 Risk Hedge

* Finance Committee 운영

- Invoice and Payment Procedure
- Accounting Procedure
- Bank Operation(자금잉여, 부족)
- F/X Risk Control

라. Negative Cash-Flow



2. 터키 TUPRAS Project (K-EXIM Direct Loan + Commercial Loan)

1. 사업개요

- 프로젝트명 : 터키 TUPRAS 탈황설비
- 수출 계약 금액 : U\$95,690천 (EPC계약)
- 수출자 : GS건설(65%), GURIS(35%) Consort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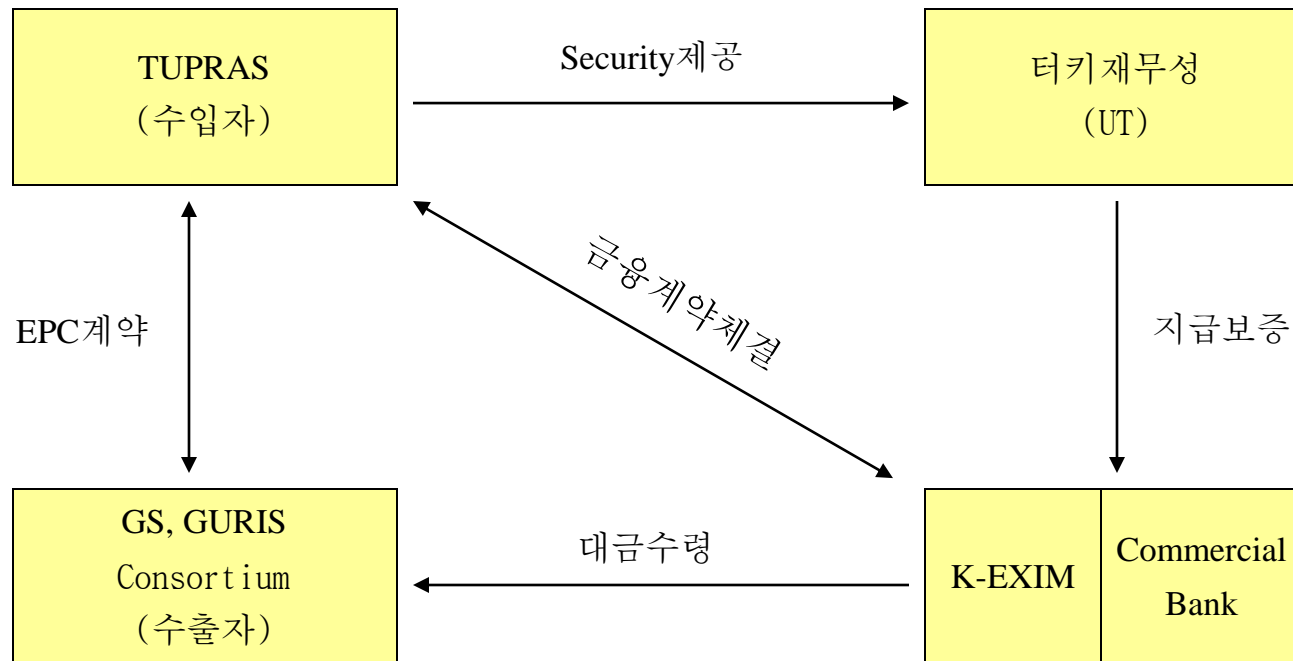
2. 주요 금융 조건

- 금융조달금액 : U\$61,990천(GS건설 계약금액의 85% [K-EXIM], 15% [Commercial Loan])
- 차 입 자 : TUPRAS(발주처)
- 금 융 조 건 (단위:U\$천)

| 구 분 | K-EXIM | Commercial Loan |
|----------------|--------------------|------------------|
| 금 액 | U\$52,691 | U\$9,299 |
| 금 리 | CIRR (5.3%) | 6M LIBOR + 1.75% |
| 기 간 | 8.5년(거치기간 2.5년 별도) | 5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 Commitment Fee | 0.25% p.a. | 0.25% p.a. |

* 지급보증처 : 터키 재무성

3. 금융구도



* KSURE에 선적전보험 부보(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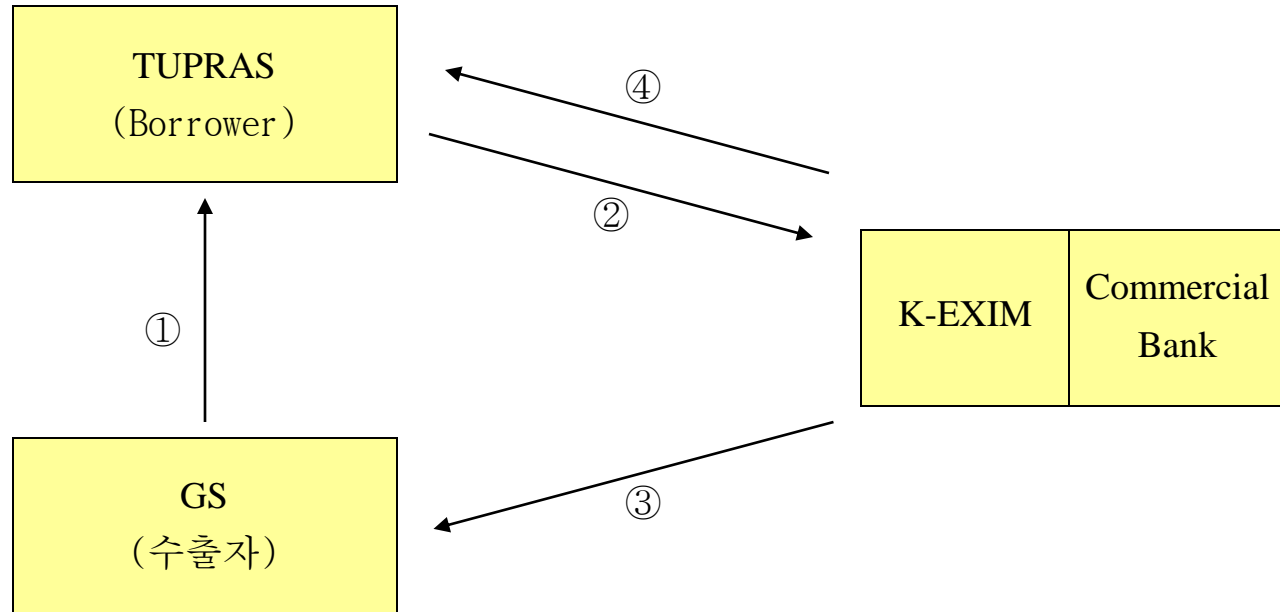
* 금융제공금액 : U\$61,990,000

- K-EXIM : U\$52,691,500

- Commercial Bank : U\$9,298,500

4. 자금수령 및 계약발효일

가. Direct Payment 방식



① Invoice

② Request for disbursement

③ 대금지급

④ Notice of disbursement

나. 자금수령 방법

- 선수금 15% : GS건설이 TUPRAS에 서류 제출
(Commercial Loan) TUPRAS가 Commercial Bank에 Request for Disbursement
⇒ GS건설 자금 수령
- 기성금 85% : GS건설이 TUPRAS에 서류 제출
(K-EXIM자금) TUPRAS가 K-EXIM에 Request for Disbursement
⇒ GS건설 자금 수령

다. 계약 발효일

- 계약자 AP/P-Bond 제출
- 금융계약서 발효 : 터키재무성(UT) 보증서 수령
- 계약자 선수금 수령

5. 주요 Issues 사항

- Commercial Loan, 금융조건 합의 : 터키재무성의 내부적인 Benchmarks의 기준 준수 요청
- 터키 정부/경제 불안 및 터키 Consortium사의 신용위험
 - : Consortium 사간의 Surety Bond 교환

3. 이란 South Pars(ECA + Commercial Lo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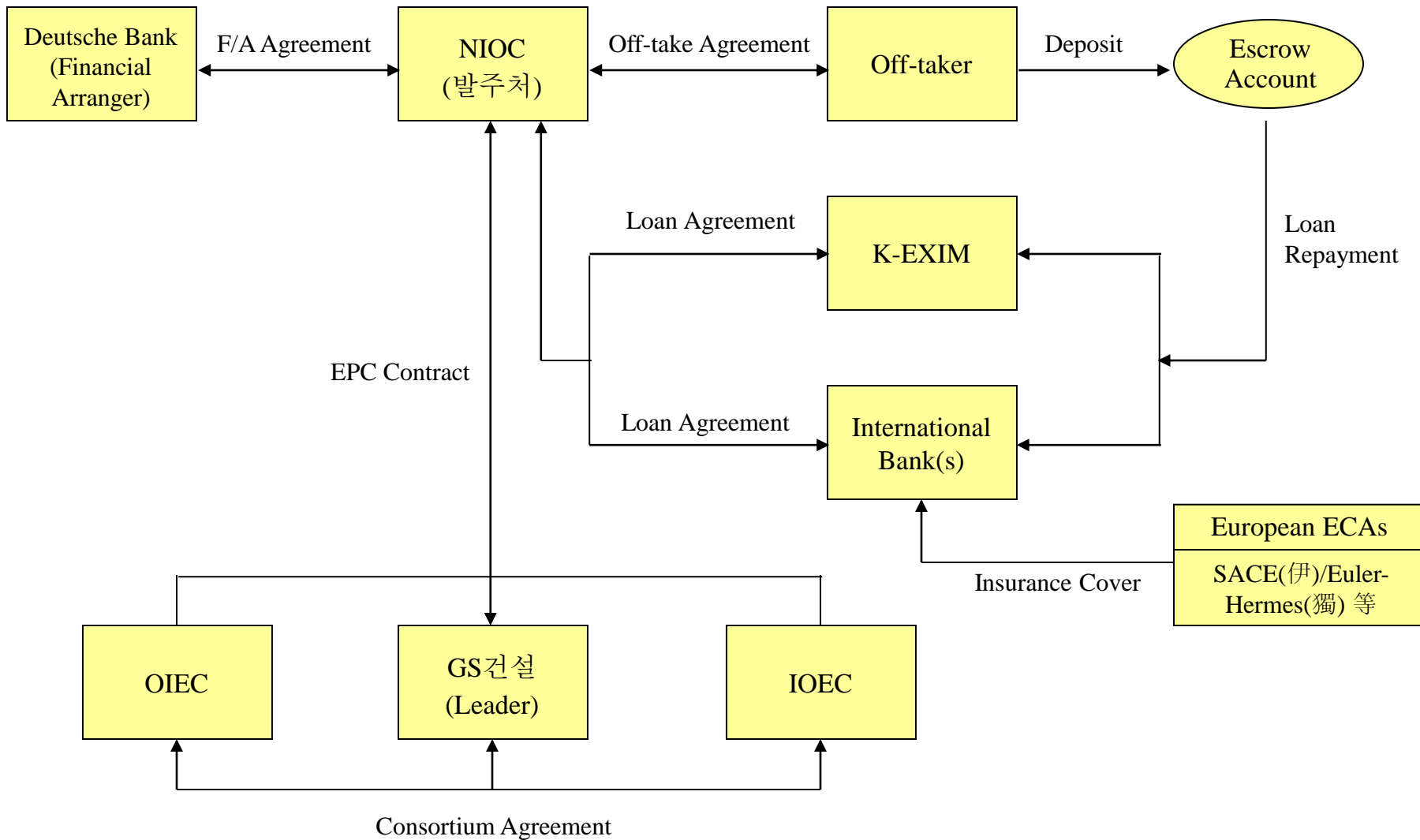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프 로젝트명 : 이란 남부 가스개발설비 및 육상 처리시설
- 수출 계약 금액 : U\$1,597,790,000
- 수 출 자 : GS건설, OIEC(이란), IOEC(이란) Consortium

2. 발주처 Financing Arrangement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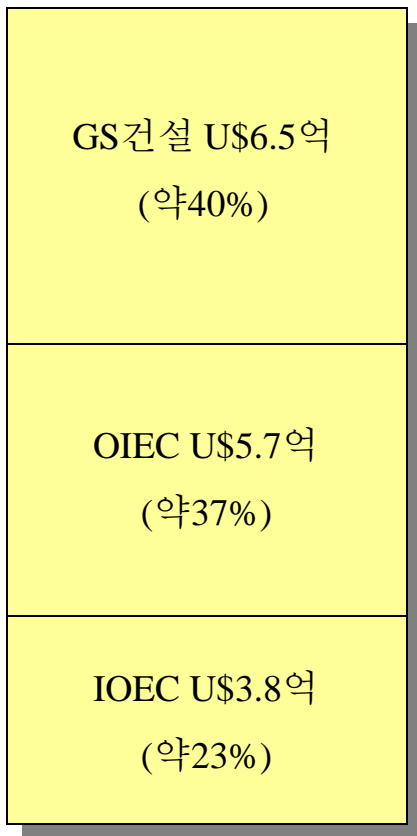
- 금융조달금액(계약금액의 85%) : U\$1,358,121,500
- 이란재무성 지급보증 없는 순수한 P/F형태
- ECA Loan + Commercial Loan

3. 금융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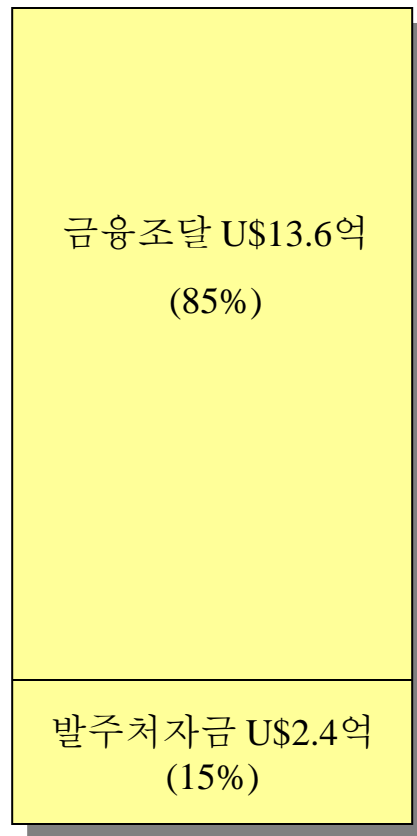


4. 금융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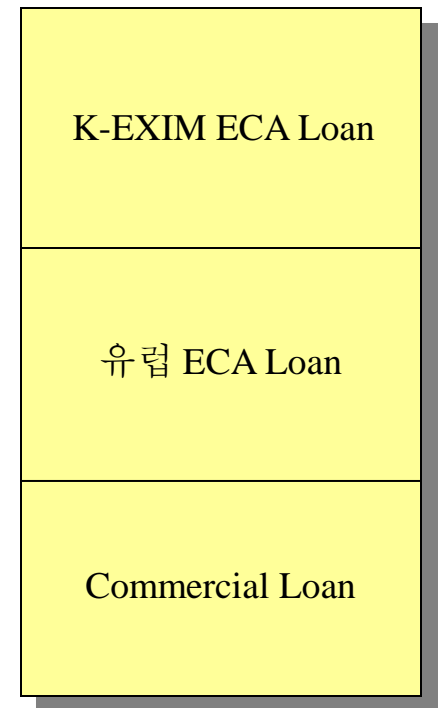
▶ 총계약금액: U\$16억



▶ 금융조달액: U\$13.6억(85%)



▶ Source별 금융조달



(참 고 자 료)

해외건설 금융의 개념 및 구조 이해

= 목 차 =

1. 해외 건설 공사

가. 용 어

나. 발 주

다. 계약자 선정

2. 해외 건설 금융의 개념

가. 금융기관

나. 금융의 의의

다. 해외 건설 금융

3. 해외 건설 금융의 구조

가. 소요자금

나. 자금조달

1. 해외 건설 공사

가. 용 어

○ 해외 공사 (해외 건설 촉진법)

- 해외 건설 공사
-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 해외 건설 공사

- 토목/건축/산업설비와 조경/전기/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 건설 공사 관련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산업 설비 (대외 무역업)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 장치 등

나. 발 주 (분할 발주 와 일괄 발주)

○ 분할 발주

- 사업주가 Project에 대해 분할 발주

. Engineering 계약자 : 설비 설계 의뢰

. Procurement 계약자 : 설비 기자재 구매 의뢰

. Construction 계약자 : 시공 의뢰

. Project Management 계약자 : Project 총괄 관리

* 문제점 : 책임관계 불명확, 완공지연 가능성

○ 일괄 발주

- 사업주가 Project에 대해 일괄 발주

(장 점)

- . 책임의 집중 => 신속 정확
- . EPC 동시 => 공기 단축
- . 과잉 설계 방지 => 비용 절감

(단 점)

- . 축소 설계 => 안전 및 내구성에 문제
- . 발주자의 통제 능력 약화

EPC Turnkey 계약

: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참 고)

E P C 가격 결정 방식

- o 미국 회사들의 특징
 - 실비 정산제 (Cost Reimbursable)
 - 수고비 별도 개념 (Cost plus Fee)
 - 단점 : Over-design , 비용 과다

- o 일본 회사들의 특징
 - Turnkey 계약방식 + 금융주선
 - 영향 : FDLSTK 방식의 일반화

다. 계약자 선정

○ 입찰 (Bidding)

- 수의 계약 방식 : 소수의 회사와 Negotiation 방식
- 경쟁 입찰 방식 (Competitive Bidding)

. 제한 (Limited) : PQ < Pre-Qualification > Process

(예비 심사 과정)

. 공개 (Open)

* 입찰 초청서 (ITB 또는 Tender Document)

: 발주자의 Specification, Requirement/ 평가 방법 등

○ 입찰서 평가와 가격 협상

- TBE : Technical Bid Evaluation (Short listed)
- CBE : Commercial Bid Evaluation (Lowest awarded)

(참 고)

계약 금액 결정 방식

- o Fixed Price Contract

: 일의 양, 소요공기, 건설비용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 o Unit Rate Contract

: 품목별 납품 단가에 대해 협의

(공사 초기 단계, 추후 확정으로 전환 가능)

- o Cost plus Fee Contract

: 계약자 선정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 되거나,

확정금액 계약 방식 선정이 곤란할 경우 채택

- o 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최고 한도 보장)

: 비용 초과시 발주자가 부담

비용 절감시 발주자와 공유 (동기 부여)

2. 해외 건설 금융의 개념

가. 금융 기관 (국내 + 해외)

- 제 1 금융권 : 은행 (예적금의 판매)
- 제 2 금융권 : 비 은행 금융기관 (캐피탈, 생명, 카드사 등)

* 금융 투자 회사

- 증권업 + 자산운용업 등 겸업 (국내 자본시장법)
- 정보 제공 업무 : 재무자문, 증권 발행 대행, M & A 주선
- 자본시장 형성 : 유가증권의 인수 관련 제반 사항
- 자본투자 업무 : 주식, 채권, 파생금융 상품 거래 (Dealing)

(참 고)

기업의 자금 수요

- 도.소매 회사
 - 운영자금

-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 제작자금, 운영자금

- 제조회사
 - 운영자금, (해외)시설투자 자금

(참 고)

금융 (자금 조달) 방법

○ 정 부

- 세수, 차관 도입, 채권발행

○ 기 업

- 대기업 : 유가증권 (주식, 채권, CP 등)발행, 금융기관 차입
- 중소기업 : 자기자금, 차입금

* 차입금 (대출금)의 분류

. 거래방식 [건별 /한도] . 담보유무 [신용 / 담보]

. 상환방식 [만기 일시 / 원금 균등분할 / 원리금 균등분할]

○ 개 인

- 금융기관 차입

(참 고)

Financial Advisor (금융 자문 기관)

- 사업주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제공
 -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통합 조정, PIM의 작성 등
- 전문적인 경험을 지닌 상업은행, 투자은행 등이 담당
- Arranger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추세

(참 고)

Arranger (금융 주선 기관)

- PF 거래에서 대주단을 대표하는 역할
 - 금융 조건 협상, 금융 및 채권 보전 관련 서류 작성 ,
Syndication 등에 주도적 역할
 - * 금융 조건 (Terms & Conditions)
 - . Pricing : 이자, 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 . 상환스케줄 (Repayment Schedule)
 - .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 . 의무사항 (Undertakings)
 - . 채무불이행 (Event of Default)
- 사업주에 의해 지정 (Mandated Lead Arranger)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2-5개 금융기관이 동시에 참여

나. 금융(자금조달)의 의의

○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

- 사업의 목표 : 사업 성공
-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 : 적기에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
- 금융은 프로젝트의 일부

○ Project Risk / Project 신인도에 영향

- Project Risk는 특정 금융제공자의 참여로 감소되는 효과
- MDB나 ECA 참여시, 정치적 위험이 경감되는 효과
- 효율적 Due Diligence에 의한 확실성, 투명성 증가
(MDB , EC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등)

○ 자금의 유동성 및 Cash Flow에 영향 (MDB , ECA 등)

- 개도국 정치적 위험에 대한 상업금융의 한계 보완
- 현지금융의 낙후성,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
- 금융기관별 금융조달 방안 최적화 필수 ==> 수익에 직결
 - .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수수료 : ROE , DSCR 등에 직결

○ Project 추진 과정에 영향

- 금융수단을 초기단계에 결정 필요 ==> 소요시간 / 추진절차에 영향
- 금융기관별 정책 또는 절차 상이하여 사전조사 필수
 - . MDB : 공식 지원절차 보유 (투명성), 환경문제 중시
 - . ECA : OECD 협약 준수, 지원대상 거래 및 금액
 - . 사업소재국 정책금융 활용 등

다. 해외 건설 금융

(1) 추 이

< 과 거 > .금융기관이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건설회사는 동자금으로 해외 발주처를 위해 공사를 한후,
(이때, 해외 발주처 정부가 건설사를 위해 보증)
.건설회사는 해외발주처로부터 분할로 대금을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가 주종

< 현 재 >

.금융기관이 해외 발주처에 대출을 해주고,
(이때, 해외 발주처 정부가 금융기관을 위해 보증)
.건설회사는 단지 공사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금융기관은 해외발주처로부터 상환대금을 분할로 수령

(2) 진행 단계별 금융

- 입찰서 제출, 평가, 선정 단계
 - Bid Bond 제출
 - 출자금 투입
- 건설 단계
 - AP / P / W / R Bond 제출
 - 차입금 투입
- 운영 단계
 - 차입금 상환
 - 투자이익 회수

(참 고)

프로젝트 이행성 보증

- 종 류 (진행 단계별)
 - 입찰 보증 (Bid Bond)
 - 선수금 환급 보증 (Advance Payment Bond)
 -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 하자 보수 보증 (Warranty Bond)
- 법적 성격
 - 제3자 보증 (Third Party Guarantee)
 - 무조건적 지불보증 (Unconditional)
 - 취소 불능 보증 (Irrevocable)
 - 우발 채무 (Contingent)

3. 해외 건설 금융의 구조

가. 소 요 자 금

- 시설자금 : 프로젝트 건설자금 (EPC 금액)
- 개발비용, 금융비용
- 운전자금 : 프로젝트 완공후 최초 1회전 운전자금
- 예비비

[자금 조달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나. 자금 조달 (금융)

(1) 자 기 자 금

○ 출자금

- 제공자 : 사업주, MDB, Infra Fund, 일반투자자 등

○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Loan)

- 성 격 : 중간자본금(Mezzanine Capital)- CB,BW 등
- 제공자: 사업주, 금융기관, 기금 등

(참 고)

Mezzanine Capital

○ 장 점

- 고정금리, 장기 무담보 차입 (Fixed rate, Long-term, Unsecured)
- Debt to Equity ratio 결정시 Equity로 간주
- 원리금 상환일정과 규모 결정
- Equity 보다 시장 유동성 풍부
- 지급이자로 간주되어 절세 효과

○ 단 점

-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
- 프로젝트 금융구조 복잡 : 당사자 이해 관계 조정 등

(2) 차 입 금

- 수출 신용기관 : OECD 협약 준수 , 지원대상 거래 및 금액
- 국제 개발 금융기관 : 공식 지원 절차 보유 , 환경 문제 중시
- 상업 금융기관 : 유동성 풍부,지원 조건/절차 관련 융통성
- 현지 금융 : 사업 시행국 금융기관에서 조달 (현지화)
- 지역 금융 : 지역적 유사 국가 금융기관에서 조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 이슬람금융 : 중동,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발
- 인프라펀드 : MDB등도 개도국 펀드 운영에 참가
- 국제채 : 기채자가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채권발행

(참 고 자 료)

Post 코로나

국 내 . 외 경 제

Paradigm 의 변 화

= 목 차 =

< 세 계 경 제 >

I. ‘ 코로나 팬데믹 ’

II. Paradigm 의 변화

< 국 내 경 제 >

I. 특 징

II. ‘ 코로나 팬데믹 ’ 영향

< 세 계 경 제 >

I. ‘코로나 팬데믹’

-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
금융에서 문제가 생겨 실물경기로 번진
97년 외환위기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실물경기의 문제가 금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으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음.

- 실물경기 충격후,
신용 경색에 이은 금융으로의 전이 방지
- 경기 활성화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처방만으로는 한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최우선 과제

(1) ‘글로벌 금융위기’ 와 ‘코로나 팬데믹’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는

미국의 부동산 부실대출에 따른

‘모기지 채권’이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리먼 브라더스’ 등 금융권이 부실채권 등으로 어렵게 되자

자신들이 살기 위해

기업들에게 기대출한 자금들을 회수하면서

실물경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

- 19년 12월부터 시작된

‘ 코로나 팬데믹 ’은 ,

실물경기 충격으로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다시 금융으로 전이될 수가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 .

. ‘ 코로나 팬데믹 ’ 이전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소비자들은 돈이 없게 되자 소비를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습.

. 이는, 돈을 빌려 생산.공급했던 공급자 측면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신용 불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는 다시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참 고)

외 환 위 기 (97년 11월)

구 분

- 위기의 본질
- 위기의 진원지
- 위기 요인
- 버블의 성격
- 기업부문의
위험요인
- 위기의
파급과정

주 요 내 용

단기, 급성 국가 부도

대기업

기업의 차입 경영

기업발 과소비 버블

과잉 투자

-> 부실기업 양산

대기업 연쇄 도산->은행.종금사

연쇄 부실화->외국자본 이탈->

국가 부도 위기

(2) ‘경기 부양 대책’ 과 ‘보건 이슈’

- 97년 ‘외환 위기’ 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경기 부양 대책으로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정책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자본 확충 및
국가 주도의 부실자산 매입 등
주로 전통적인 재정정책 / 통화 정책 등이 대부분이었음.

- 20년부터 ‘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 으로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해도
개인이 외출 및 여행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 보건 이슈 ’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게 되었습.

. 과거와 같은

경기 부양 대책 (재정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

. 현 상황에서의 해법은

금융 매커니즘이 아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최우선 과제임.

(참 고) ‘ 경기 부양 대책 ’과 ‘ Money Game ’

‘ 코로나 팬데믹 ’ 경기 부양 대책은

코로나 이전 경기 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등이 일정 부분 조정된 후,
신규 수요가 창출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 코로나 이전 ,

전세계 돈의 흐름을 보면

08년 ‘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급된 과도한 현금 유동성이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

· 이런 상황에서 , 최근 ‘ 코로나 ’ 경기 부양 대책 등으로

유동성 (현금)이 추가적으로 무제한 투입 . 공급되고 있어,

결국 남는 불확실성이 ‘ Money Game ’ 으로 전이된 측면이 있음.

II. Paradigm의 변화

○ ‘ 코로나 팬데믹 ’ 이후

세계 경제는 산업 생태계의 본질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New Normal 시대의 특징으로 ‘ 新 3 D ’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

- Deglobalization (탈 세계화)

- Decoupling (탈 동조화)

- Digitization (디지털화)

(1) Deglobalization (탈 세계화)

-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 진원지 논란으로 G2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G2 ‘ 新냉전 시대 ’를 연 사건이 되었습.

- 중국에 글로벌 생산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80% 정도가 탈 중국을 계획하고 있듯이,
‘ 세계의 공장 ’인 중국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투자 (FDI) 성장세 둔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참 고)

미 국 의 위 상

2 차 세계대전 이후 70 여년간 ,

기축통화 달러와 군사력, 전통산업의 경쟁력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한 미국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락’ 예상을 깨고 ,

테크기업 주도로 더 강력해져 있는 상황임.

(가) 전환기 마다 ‘ Rule ’을 만드는 미국

· 2000 년대 ---인터넷

· 2010 년대 ---모바일

· 현재 --- 플랫폼 [‘ 정보 정거장 ’]

(온라인에서 상품과 콘텐츠를 사고 팔거나 마케팅하는 일종의 장터)

(구글, 유튜브, 앱스토어, 페이스북 , 아마존 등은

각각 검색, 동영상, 앱 ,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의 플랫폼)

(나) ‘ 빅 5 ’ 테크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들이

‘ 정보 정거장 ’인 플랫폼을 장악해 21 세기형 데이터 독과점 구축

. 4 개 테크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의 시가총액 합계가

한국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약 3 배 (19 년말)

* ‘ 빅 5 ’ 테크기업 시가총액은

일본 (세계 경제 3 위) GDP 규모와 비슷

(다) 미국 다음 패권은

중국이 아닌 구글 .아마존 등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금융서비스업 등에 진출 노력

. 장기적으론, 주요가치가 사람에서 로봇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

(참 고)

‘ 글로벌 공급망 ’

(미.중의 ‘신 냉전’ 위기)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탈출해야 미래가 있다며,
생산기지를 미국 우방국가로 옮기고 5G .인공지능 등 4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제번영네트워크 ’등을 활용, 미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새로 구축하고자 함.

(가)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 글로벌 공급망 ’ 자체를,

미국 주도하에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 미 . 중 1, 2 차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

- 1 차 (18 년) : ‘ 관세 ’

- 2 차 (20 년) : ‘ 글로벌 공장 ’

(나) ‘ 반도체는 안보 ‘라는 생각 (겉으론 ‘ 안보위협 ‘, 속사정은 ‘ 5G 패권’) 하에,

미국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총력전 (5G : 자율주행, 빅데이터, AI 의 핵심)

. 미.중.일의 반도체 자국주의 [미국 : ‘ 5G 주도권 뺏기면 끝장 ‘]

- 미국 : 자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를, ‘화웨이’가 수출하는 것을 금지

[애플 - 중국 공장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이전 유도

인텔 -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시설)건설 예정

TSMC -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55% 점유)로,

미국에 생산 공장 짓기로 결정

*삼성전자 (17% 점유) -평택에 9 조원 추가투자 결정]

- 중국 :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60%, 자급율이 20%대인 현 상황을

2025 년까지 자급율 70 %를 목표로 집중 투자

- 일본 : 인텔, TSMC 등 생산거점의 적극 유치

세계 반도체 시장

< 한국 (반도체) : 전체 수출의 20 % 이상 >

[삼성전자 : 반도체 세계 1 위 (17 년 6 월말)를 미국 ‘인텔’에 다시 내줌 (18 년말)]

1. 시장 규모 (21 년 전망)

. 메모리 반도체 (D 램. 낸드 플래시)

- 세계 반도체 시장 (약 545 조원)의 1/3 규모

* 삼성전자 : 두 분야 모두 40% 이상 (세계 1 위)

.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 세계 반도체 시장 (약 545 조원)의 2/3 규모

* 미국 (인텔 등) : 63% , 중국 : 4 % , 한국 : 3.4 %

2. 5G 통신 장비 (20 년말)

. 화웨이: 31% (1 위), 에릭슨: 29%, 노키아: 18%, ZTE: 11% ,삼전: 7%(5 위)

(다) 대중국 고립작전을 위해,

친미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EPN)’를 미국 주도로 확대 추진 .

. 73 년 1 차 오일쇼크 후,

재무장관들 주축의 G5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를 결성

. 75 년 2 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G5 정상회의로 승격되고 G7 (이탈리아 및 캐나다 포함)으로 확대

. 97 년 러시아가 참여하며 G8 이 되었으나,

14 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후 다시 G7 으로 환원

. 20 년 미국 주도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확대 추진 (G11/G12)

-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국 초청 (한국.인도.호주 포함)

-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국가 초청 (러시아 포함)

- 중남미 국가 초청 (브라질)

(2) Decoupling (탈 동조화)

- 최근 주목받는 ‘ Post 코로나 ’ 현상은,
실물경기 지표가 최악 수준이지만 주가지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실물과 금융의 엇박자 현상임.
(전형적인 Decoupling은
국가간 또는 한 국가와 국제경제 흐름이 어긋나는 탈 동조화를 말하지만,
월가와 해외 언론에서는 실물경기과 주식시장의 괴리 현상을 주로 일컬음)
- 실물과 금융간 Decoupling은,
과거 위기 차원을 넘는
‘ 재정확대 ’ 와 ‘ 무제한 양적완화 ’ 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참 고)

‘ 재정정책 ’ 과 ‘ 통화정책 ’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정책을 쓰는데,

재정 지출 등을 늘리는 ‘재정정책’과 통화량 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있음.

(가) 재정정책

1929 년~1933 년 대공황 당시,

‘하버드 학파’의 ‘케인즈’가 주창하고 실제로 사용된 정책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

(예 : ‘코로나 팬데믹’ 이후, ’ 안전 ’을 위한 ‘ 큰 정부 ’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20 년 12 월 ‘5 차 부양안’을 포함, 총 3 조 7000 억 달러 지출)

(나) 통화 정책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즈’와는 상반되게,

1980 년대에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 먼’이 주창하고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까지 전세계에서 주로 사용된 정책.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자유시장 원리’에 의거 ,

‘ 연준 ‘이 통화량 등을 조절(예 : ‘금리 정책’ 등)하여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내용

(예 : ‘ 효율성 ‘ 을 강조한 ‘ 작은 정부 ’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식적으로 분리된 ‘ 연준 ’이

‘ 금리 인하 ’, ‘ 양적 완화 ‘ 정책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

(3) Digitization (디지털화)

-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유통.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비대면 경제 확산’은
‘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고 산업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됨
- 금융서비스 산업의 ‘ 핀테크 추세 ‘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디지털 화폐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이
미국 달러 중심 국제금융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도 큰 상황임.

(참 고)

‘ 디지털 화폐 ’

중앙은행을 뜻하는 ‘ Central Bank ’와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인 ‘관영 디지털화폐 (CBDC)’는,
가상화폐 (예 : 비트코인 등)와는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임.

(가) 중 국

인민폐를 기축통화로 한 새로운 금융 질서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이,

20 년 4 월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첫 공개

(22 년 ‘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에서 전면 활용 목표)

- 국가가 보증하여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음
- [전자결제+블록체인 (분산저장)]기술을 결합, 비대면 거래에 적합
- 은행 계좌 연동 없이,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하여 송금.결제 등 가능

(나) 미 국

세계 금융질서의 패권을 쥔 미국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을 포함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등이 MIT 대와 디지털달러 개발 착수),

I T 기업인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 디엠 (Diem) ’을 선보일 예정.

. 기존 금융체제와 별도로 가상화폐 ‘ 디엠 ’을 개발할 계획이었습.

. 그러나, 돈 세탁 우려 등 서구권의 극심한 반대로,

각국의 관영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노선을 선회 .

. 달러. 유로. 파운드 등에 각각 연동되는

복수의 Stable Coin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어,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을 발행하여,

각국의 관영 디지털 화폐와 실시간으로 1 대 1 교환 추진

< 국 내 경 제 >

I. ‘ 특 징 ‘

○ 한국의 GDP 대비

무역(수출 / 수입)규모의 비중은 약 62% (20년말)로,

‘ 코로나 팬데믹 ‘ 이후 글로벌 경기의 침체는

무역 비중이 큰 한국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임.

[GDP 대비 무역 비중]

(한국 : 62% , < 20년 GDP : 1조 5,868억불 [수출: 5,128억불, 수입: 4,672억불]>)

(미국 : 25% , 일본 : 35 % , 중국 : 40% 내외)

- 세계는 이미 각자도생으로,

무역보다 내수 활성화에 초점.

-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하던 시대는 끝나고,

규제 풀어 선진국을 끌어들이는 내수 확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

(1) 세 계 : ‘ 각자 도생 ’

- 전 세계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제 정책의 주안점이 내수 살리기에 집중되면서,

무역 쇠퇴라는 이상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음.

[세계의 소비 비중 < 2019년 기준 >]

: 미국(29%), EU (21%),중국(10%),일본(5%),한국(1.6%)]

· 세계 무역 규모의 쇠퇴는

대미. 대중국과의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45% 내외)을 차지하는

한국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음.

(2) 한 국 : ‘ 내수 확장 정책 ’

- 최근, 세계 무역 규모의 감소로,
각국은 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내수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바,
한국도 수출 감소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장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국 및 중국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들을 한국의 부족한 내수 보완시장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임.

II. ‘ 코로나 팬데믹 ’ 영향

○ ‘ 코로나 팬데믹 ’ 이전,

한국 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경기 하강 국면에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빠져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자

한국은 도리어 Reset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측면이 있음..

- 세계 경제 재편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 국내 경제 회생 : 파산 방지에 집중 (기업,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 위 기 관 리 : 가계부채의 재조정에 중점

(1) 세계 경제 재편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 ‘ 코로나 ‘ 사태 이전,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전 세계의 투자가 몰려든 시장이었으나,

‘ 코로나 ‘ 사태로

전 세계의 투자가 중단되면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 일본 : 상호보완적 , 의존적 [부품.설비.기술 등]

중국 <-> 한국 : 경쟁적 , 대체적 [한국의 중요도가 낮음]

==> 중국에 의존하던 ‘ 글로벌 공급망 ’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수월성을 갖는 분야에 대한

Reshoring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

(2) 국내 경제 희생 : 파산 방지에 집중

(기업, 영세 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 ‘ 코로나 ‘ 위기 이후까지

타성과 기대가 생기도록 지원해서는 안되며,

현 상황은 정부의 선별적 집중 지원으로 희생이 필요한 시점임.

== >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비하는

’ Resetting ’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은 희생 이후의 문제임.

. 기 업 : 부도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데까지만 지원

(보통 3개월 주기로 생산사이클이 일어나는 바,

일회전 운영자금을 지원, 부도를 막는데 주력)

. 영세사업자 : 생존 지원에 집중

. 취약 계층 : 생계자금 지원에 집중

(3) 위 기 관 리 : 가계부채의 재조정에 중점

-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4% (20년말)로 상당히 큰 규모인 바,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를 안정시켜야

국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부채 규모]

- . 한국 : 가계 부채 (GDP 대비 약 104% , 20년말)
- . 중국 : 기업 부채 (GDP 대비 약 165% , 19년말)
- . 일본 : 정부 부채 (GDP 대비 약 266% , 20년말)

.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 53 % , ‘ 신용대출 ’ 등 : 47%)의

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장기화하며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은행 : 자금조달/운용간 불일치, 한국은행 : 지원 필요